"관리부재…예정된 결과"

"종교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달 발생된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바라보는 교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번사건으로 불교방송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24억여원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불교방송의 위상추락과, 이 사건의 여파로 불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보는 교계의 눈

현저 불교방송이 사고수습을 위해 구성했던 자체 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 심의실장)는 사실상 해체되고 재단이사회 차원의 수습위원회(위원장 영담 상임이사)가 구성됐다. 또 조계종총무원도 지난 1월 27일 불교방송 대책위(위원장 성관 문화부장)를 구성했다. 이와관련 총무부장 혜창스님은 대책위 활동에 대해 "징계보다는 수습차원의 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누적돼온 불교방송국의 구조적인 병폐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르 분석되고 있다. 1차적으로 김선도 등 피의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특히 지난 95년 이후 1년 가까이 최고경영진의 공석으로 주인없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결과가 이같은 최악의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전문인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경리업무체계의 허점과 경영진의 소홀한 관리가 거액의 회사재산을 횡령 유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 직후에야 밝혀진 최고경영자도 알지 못한 외환은행 마포지점의 불법 당좌거래 개설과 이를 통한 어음 임의 발행 및 할인유통, 회사어음과 사용인감 도두를 경리부 차장이 관리하는 폐단의 지속 등은 사건의 발발을 위한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다. 또 한일은행 마포지점에서 발행된 백지어음으로 위조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어음, 그리고 일시가수금으로 처리돼 입출금이 분명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돈, 김선도 명의의 사장임금 지급통장개설과 불법담보대출 등 이번 사건은 경영진의 경리업무에 대한 무지와 관리 소홀, 무관심이 함께 낳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월 조해형사장이 취임, 전문경영인의 이력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불교방송 사장 취임 이후에도 나라기획 회장직을 겸직했던 조해형사장과, 상무직외에 관리국장, 재단사무국 사무국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송병욱 상무 또한 제대로된 관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불교방송 지방국확대 등 불교방송의 외형적인 팽창과 더불어 내적인 변화와 질적 성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경제불황을 이유로 감량경영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에 역행하는 경영구조로 일관해 왔던 점은 피할 수 없는 경영의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다보빌딩에 위치한 불교방송 전경.

회계 시스템 구축등 경영 합리화 방안 절실

진상조사 철저…운영권 줄다리기 재현 '금물'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공금횡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불교방송 대책위원회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방송기자재 이중지급횡령, 지출결의서 위조변조 등을 밝혀냈다. 위원장 영배스님은 "사실과 증거의 확인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분석, 적절한 대안마련만이 불교방송이 살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재단이사회 수습위원장 영담스님은 "회계감사의 범위를 94년까지 확대 조사해 방송국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경리시스템의 재구축과 방송국 합리화 방안등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단이사회 수습대책위가 수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증대한 고리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번 사건을 한가닥의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었다.

불교방송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축소와 은폐등 미진한 대응으로 이미 조기수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경영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이번 사건으로 불교방송의 이미지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불심으로 세운 불교방송 정재가 마구 유용 횡령되고 직원들의 사명감 실종에 교계의 실망감 또한 크며 정작 사원들의 사기도 말할 수 없이 저하됐다.

또한 이번 사건과 함께 불거져 나온 방송국 고위관계자의 공공연한 방송국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언급과 이와 관련된 고위관계자의 일부관련설등 추측과 의혹도 정확한 사실과 증거확보를 통해 앞으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과 마무리를 통해 과거 불교방송문제가 발생할 때면 고개를 들고 일어났던 방송국과 진흥원, 그리고 종단의 방송국 운영권을 둘러싼 미묘한 양상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교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은자 기자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올바른 삶 확신 설때까지

김 두 원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 참회란 잘못의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참은 참마(懺摩)의 준말이며 회(悔)는 참마의 번역으로,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懺)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인 회(悔)의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탈의 삶은 몸과 말과 뜻 속에 있는 잘못된 행위를 지양하지 못하면 성취될 수 없으며 참회란 내 마음속에 뒤틀림과 잘못됨을 고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삶을 창조적으로 건설해 가는 활동이다. 잘못과 허물은 자아와 세계가 맞물린 인간의 삶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죄업은 본래 생겨난 곳이 없다는 바른 사유와 지난 잘못을 고쳐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통해 참조적인 행위로 바뀔 수 있다.

참회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으며, 사참은 불보살님께 자신의 잘못을 몸과 말과 뜻으로 드러내서 참회하는 방법이다. 또 이참은 본래 일어난 바 없는 죄의 참모습을 관찰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참회법이다.

그리고 참회법에는 규정된 작법에 따라 작법참회, 취상참회, 무생참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작법참회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죄업을 소멸시키는 취상참회, 그리고 마음을 바로하고 단정히 앉아 불생불멸의 실상을 관하여 무명번뇌를 끊는 무생참회가 있다. 작법참회와 취상참회는 사참이며 무생참회는 이참에 속한다.

어쨌든 참회는 파계로 인한 고통과 계행으로 인한 기쁨이 명확히 밝혀져 가슴에 와 닿을 때 다시 범하기 쉬운 잘못조차도 미리 깨닫고 조심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성하는 생활까지도 반성하여 올바른 삶에 대한 확신이 설때 비로소 진정한 참회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말세에 태어난 중생이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자함에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전세의 업장때문이라며 마땅히 참회에 힘쓰라 하셨다. 증애 질투 첨곡을 끊고나서 가장 뛰어난 진심(眞心)을 구해야 한다.

시 론

끝없는 탐욕의 종착역

총 5조가 넘는 특혜금융을 받은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는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전반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민 모두를 절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외채 총액이 천억달러를 상회하고, 작년 한해 무역적자 2백30억달러, 금년 1월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34억달러에 이른다. 노동법 파동에 따른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1월말 현재 3조원, 수출도 3억1천여만 달러의 차질을 빚었다 한다.

'한보사태'에 국민 절망감

이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보그룹의 대형부도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로인해 수많은 연관·협력업체의 연쇄부도, 금융계 파동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주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완공을 위하여 년내에 1조원원 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정상가동을 해도 연간 4천8백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실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관 희
〈경찰대 교수·법학〉

그리고 한보그룹의 총수는 과거 수서지구 택지분양사건 등에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한보철강을 이유로 대부를 받아 계열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로서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하나의 생존전략을 구사했겠지만, 목적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탐욕스러움에 그저 아연할 뿐이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그 1차적 책임은 정치권에서 져야 한다고 본다. 누가 보아도 5조원대의 대출은 관치(官治)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권의 결정 또는 압력없이 은행장선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이니 만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 선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부도사태는 어떤 경우라도 막았어야 했었다. 극단적으로 전과자(한보 총수)에게 정치자금·뇌물 등을 받고 한통속이 되어 무책임하게 놀아난 꼴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도 단순한 '대형금융사고'가 아닌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성격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태에서 관련 정치인, 관료, 금융계 인사는 마땅히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계기로 특히 정치권의 분위기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정치권은 경제계에 비해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후진적이고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계의 분위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官)에 의존하여 특혜를 받아 횡재하려는 불합리한 분위기가 잔존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등을 망각한 많은 로비자금, 접대비 등이 경영에 주름살을 주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경제계도 비합리적인 경영체제를 완전히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일반 국민의 민주적 윤리의식 수준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민주시민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라는 잠언이 그것이다.

민주적 윤리의식이란 구체적으로 공공심(公共心), 절대의식, 준법정신, 관용과 타협, 인간애 등의 덕목이다.

선량을 선별못한 잘못도

만약 우리 국민 모두가 검소하게 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준법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라면, 한보의 정치인 로비가 통했겠는가. 물론 오늘의 한보사태는 한보그룹 총수와 집권여당·정부쪽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윤리를 포함한 국민일반의 민주적 윤리의식과 연관지어 크게 보아야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 민주적 윤리의식의 성숙은 결국 국민 각자의 인격완성에의 접근을 뜻하고, 인격의 완성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견성성불(見性成佛)이요,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속의 불교 ⑩⑨

진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들 자신

"지금 처한 당장의 경계부터 푹 쉬어 보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집착이다. 선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벗어나 푹 쉬어 보라. 지난 날의 모든 업도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 실려 있으니 지금 한생각 크게 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셈이 된다. 그러다가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그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놓아버려라. 당신의 잠재 컴퓨터는 점점 짐이 가벼워져 결국은 텅 빈 듯 홀가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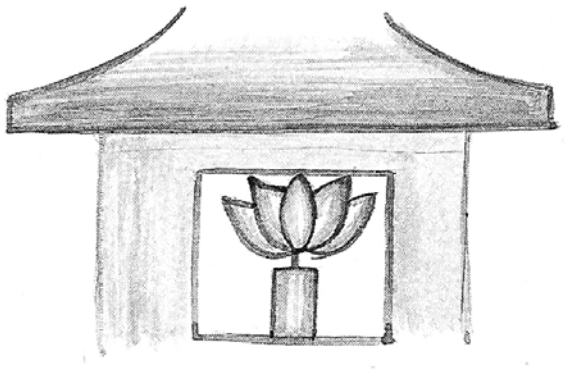
불법 수행의 핵심은 방하착(放下着)에 있다. 마음 비우기, 무소유의 삶이란 바로 방하착-집착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릇에 담긴 물건을 비워내듯이 마음에 가득한 온갖 욕심·상념들을 비우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요 바른 수행의 근본이 된다.

무소유의 삶이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좀처럼 쉽지않다. 다만 한순간이나마 마음을 비우기도 어렵다.

우리는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떼어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두려고 애를 쓴다. 고통· 괴로움·미움·공포·불안 등은 버리려 하고 기쁨·사랑·만족·이익 등은 잡아두려고, 더 키우려고 한다.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명예·권력·자존심 따위에 대한 집착은 생명, 건강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마련이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새의 뼈 속은 비어있다. 멀리 높이 날기 위해서다. 그러나 육질(肉質)이 무거운 새들은 높이 멀리 날지를 못한다. 개중엔 아예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사람은 집착의 무게 때문에 높이 날지 못한다. 탐욕과 갈애를 양 날개로 갖고 있는 한 훨훨 홀가분하게 날 수 없다. 아니, 날기는 커녕 추락한다. 누구나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지만 방하착을 실천하지 않기에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단계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수억겁에 이르도록 몸을 바꿔가며 진화해온 이유요,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지 않고 가령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돈·권력·명예·자존심 때문에 태어났다거나 우리가 목마르도록 집착하는 사랑·만족·이익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이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방편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화의 종점-인간완성 뿐이다. 불법에서 말하는 열반, 성불이다.

열반이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한다. 완벽한 방하착의 상태-더 이상 내려 놓을 것도, 내려 놓는다는 생각하지도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매이지 않은 것,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 마음을 더 이상 물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이름이다.

그러나 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신의 생명·건강 문제로부터, 자녀들의 문제로 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착하지 않음으로서 비로소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고, 관여하되 관여하지 않는 길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우리가 최상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의 욕심·자부심·갈애… 따위가 우리의 진화를 방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 놓기만 하면 우리는 홀가분해 질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불도 가능해진다.

방하착은 나를 위한 가장 큰 공덕 쌓기요 나아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

협 찬 : 주 인 공